

# 福祉厚生에서도 앞서가는 石油家族

지난 79년의 제2차 石油危機 이후 줄곧 침체에 빠졌던 世界經濟가 지난해 3월 14일의 OPEC 油價 引下措置 이후 서서히 기지개를 펴며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千載一遇와도 같은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 제2의 經濟跳躍을 이루고자 全力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政府予算 뿐만 아니라 物價 및 賃金까지 凍結하는 등 慣性的인 인플레이주방에 總力を 경주하고 있다.

이에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시책에 적극 호응,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경비절감등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근로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확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올해로 그 出帆 이후 만 20년을 맞게되는 精油産業이 成年의 연령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발전의 밑거름이 된 從業員들에게 어떠한 福祉厚生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아쉬운 점은 없는가에 대한 것 등을 국내 5개 精油工場의 실태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 特別取材팀

具 翼 謨 <大韓石油協會 · 弘報課長>  
梁 德 烈 <大韓石油協會 · 弘報課代理>  
梁 承 得 <大韓石油協會 · 弘報課>



## 油 公

한 방울의 기름도 생산되지 않던 우리나라에 정유산업의 開拓者로서 지난 62년 10월에 창립되어, 64년 4월부터 日産 3만 5천배럴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油公은 全量 輸入에 의존하던 석유에너지의 自給自足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國際收支를 개선하고 고용효과를 증대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음은 이미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64년의 첫가동 이후 점차 그 시설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油公의 福祉厚生제도도 개선되어 갔으며, 특히 80년의 Gulf 철수 이후 政府의 民營化방침에 따라 鮮京이 油公을 인수하게 된 후부터는 福祉厚生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果實送金에만 급급한 나머지 施設投資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의 확대에도 인색했던 Gulf의 시

절과는 달리, 會社高位層의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복지후생에 대한 집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어,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의 사기 또한 높아만 가고 있다는 許天植 公報課長의 말이다.

取材팀이 許課長으로부터 공장의 복지후생 제도에 대하여 약 1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사전설명을 듣고난 후 구내식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둘러 본 소감을 대략 記述하기에 앞서, 原始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고도로 산업화된 現代사회에

서도 衣食住의 3 가지 여건이 인간의 생활에 그 어느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면, 油公의 工場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食과 住의 2 가지 면에서 만큼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安堵感을 느껴도 좋으리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油公의 精油工場의 福祉厚生施設 및 제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와 부러움을 금치 못했었던게 솔직한 느낌인데 잠시 나열해 보면, 첫번째로 둘러 본 시설로서 再昨年에 건립된 구내식당은 약 500평의 규모로 동시에 약 5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매우 청결한 곳이었다.

이곳 식당에는 20여명의 직원이 常住하며 약 2,900~3,000의 高칼로리, 良質의 식사를 1,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키 위하여 항상 바쁜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 慶南의 主要工業地域인 대구, 창원, 포항 등의 그 어느 공장에서도 그와 같은 良質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에 찬 担当職員의 설명이 더욱 현실감있게 느껴졌다.

한편 공장직원들을 위한 住居施

設로는 아파트 85세대와 25~40坪 규모의 단독주택 90세대 및 70명 수용규모의 B.O.Q가 갖추어져 있는데, 반장급 이상의 직원이면 職責과 근무年限에 따라 入住할 수 있으며, 月管理費 또한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정도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社宅團地내에는 클럽하우스와 수영장, 4면의 테니스코트등 각종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油公직원과 그 가족들의 安樂하고도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아울러 無住宅직원을 위한 融資金制度도 갖추어져 있어 기간적으로 4年, 혹은 일반적으로 5年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누구나 年利 6%, 10年 均등분환상환이라는 好條件으로 6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82년 9월에 실시된 이후로 84년 3월말까지 120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장직원들 자체의 余暇善용을 위한 각종 취미활동도 활발하고 다양하여 산악회, 낚시회를 비롯한 15개의 취미씨클이 연간 20만원씩의 補助金を 받으며,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공장 직원들의 제반고충이나 회사에 대한 요구등을 처리하기 위한 勞使協議會는 工場長등 企業主측의 3人과 勞組委員長등 従業員측의 3人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月 1회의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對話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나, 별다른 고충도 없어서 시종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대화만이 오고 갈 뿐이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離職率이 뒷받침하지 않았느냐는 설명이다.

任職員子女에 대한 獎學金支給에서도 油公의 우수한 복지후생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두자녀까지, 中高生일 경우 등록금의 전액이, 大學生의 경우 國公立 수준으로 80%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파격적인 제도로서 자녀들의 向學熱을 더욱 북돋아 주고 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地域社會와의 紐帶增進 및 公害防止와 産業安全을 위한 시설에 대한 投資이다. 油公工場에서는 지난 70년 12월부터 慶南 蔚州郡 강동면 달월부락과 새마을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敬老잔치, 불우이웃돕기등에도 앞장서서 울산지역 공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産學協同의 일환으로 蔚山지역의 대학생 4명과 중학생 3명에게 매년 총 5백만원 규모의 장학금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과 公害防止를 통한 地域社會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일찌기 78년부터 公害防止施設에 대한 투자를 실시해 왔으며, 작년 9월 30일에는 43억 3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주공정지역 및 18,



油公 蔚山工場의 구내식당

19Block의 폐수처리 시설의 完工을 보았다.

이렇듯 우리 나라 精油産業의 선두주자인 油公은 역시 국내 精油業界의 만형답게 제반 福祉厚生制度 및 施設에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企業利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할 福祉厚生면에서 그 어느 産業의 어떠한 企業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찬탄의 느낌을 부러움과 함께 못내 지을 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공장에는 150명에 2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 식사의 질, 좌석, 식사의 순서 등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장구미사택엔 클럽하우스가 있어 외국인 및 중요인사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고 쌍봉사택에 있는 클럽하우스는 가족, 방계회사직원 등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데다 한식,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손님접대나 가족동반, 외식을 위해 매우 편리하다.



## 湖南精油

**호** 남지방의 남단 광양만 어귀에 자리잡고 국내최대 정유능력을 보유한 湖南精油(株)의 정유공장에서는 어떻게 638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힘쓰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을까?

막대한 시설투자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퇴로 정유업계중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노사의 일체감과 임직원 平等處遇를 내걸고 「품질을 개선한 호유제품」을 만들기에 털끝만큼의 소홀함이 없도록 임직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있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식당에서는 임직원의 구별이 없고 복장 및 모든 과외활동 등에서도 상하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점에서 우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사원주택단지를 보면, 장구미반도와 쌍봉지구에 단독 42세대, 아파트 16동(독신자숙소 2 동포함) 189세대 등 총 259세대가 있어 수혜율은 41.3%까지 이르고 있다.

쌍봉사택에는 유치원을 운영, 매년 30여명씩 금년 14회째 졸업시키고 있고, 麗都국민학교를 80년도에 여친공단 9개 회사와 공동 설립·개교시켰으며, 교원 29명에 총학생수는 1,440명(湖油직원 자녀수는 143명)에 달하고 금년부터는 麗都중학

교도 10개 회사가 공동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택단지내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공장도가격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외상판매후 두달 후에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공장, 쌍봉, 여수, 순천간에 왕복버스 15대를 운행시켜 종업원과 가족들의 출퇴근, 등하교, 나들이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실은 물론 두 군데의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오락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장에는골프장까지 마련되어 퇴근후나 주말이면 일반직원들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살펴보면, 적십자회에 연 80만원 지원, 光州·木浦의 보육원(52명)에 연 2,140,000원 지원, 자매마을 네 군데(국민학교 두 곳, 마을 두 곳)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서, 학습교재, 의류 등의 지원, 군경위문, 양로원에의 지원, 매월 1회씩 벌이는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헌혈운동, 정기적인 농촌일손돕기(보리베기, 벼베기, 모내기 등), 자연보호운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全南祭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동부 주최의 勞動文化祭에도 적극 참가, 현재까지 37점을 출품한 바 있다.



湖南精油 麗水工場 사택단지내에 있는 수영장

한편 「湖南地域社会의 발전과 더불어 成長한다」고 하는 회사의 방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초창기 호남인과 타지역출신 간의 고용비율로서 20대 80이었던 것이 현재는 거꾸로 80대 20으로 역전되고 있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信用協同組合은, 100% 가입에 25억원의 자산을 마련한 가운데 대부사업, 구관장 운영, 취미체육활동에의 보조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대부사업은 연이율 11.8%로 보통 대부는 300만원까지, 긴급대부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월봉급의 2%씩 차출하는 출자금 전액까지 대부해 주고 있으며, 이익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취미반에는 작년도에 10개 반에 628만원을 보조한 바 있다.

새마을運動은 경영층이 월례회를 주재하며 분임조활동, 외부초빙강사의 강연, 새마을 위탁교육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위탁교육은 수원, 부산연수원에 매년 50명씩 실시, 현재 425명이 수료, 69%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8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84~94년까지 연 50명씩 산업전문훈련(그룹내 7개 공장과 1개 기념관 시찰에 3박 4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와의 QC교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TQC(全社的 품질관리)운동도 적극적으로 실시중이다. 77~81년도입기를 거쳐 82년부터 추진기에 접어들어 41개 분임조에서 41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는 업무개선창안제도와 병행하여 20억원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관련하여 「나의 꿈, 나의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39편이 실린 제 3회 직무

이웃돕기조성회도 결성하여 봉급

의 0.1%씩 자진 납부하여 월 28만원 정도 모아가고 있는데 차량사고 다발지역에 安全防柵설치를 계속사업으로 선정, 82년 11월에 1천만 원을 들여 麗水市 연등동에 안전방책 1호를 설치한 바 있다. 또 사택 부인회도 조성되어 사회복지시설 수용 아동돕기, 인근병원 일손돕기, 지역사회의 영세민 돕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사원들의 모임인 새암분임조에서는 작품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다. 그 외, 매일 오후 5시에 당번제를 실시하여 전직원이 하기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77년 이래 4년 연속 정부로부터 우수공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勞使協議會는 71년 6월에 창설되어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 각종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독립기념관성금납부(기본급의 연 3%) 등 지금까지 100여건의 합의사항이 있었고, 매년 8월 구평회 사장이 직접 공장에 오셔서 사장오찬 간담회를 마련, 격의없이 애로사항을 듣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창립 기념일, 근로자의 날, 예비군의 날, 무사고운전 기념일, 성탄절 등)에는 푸짐한 포상이 실시되고 있는바 연평균 1,500만원 상당의 상품과 함께 연인원 2,000여명이 수상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5일의 휴가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 총 60여명의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는 약 8일간의

출석수업기간 동안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있다.

근무시간(평일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도 엄격히 지켜져서 퇴근 후 쓸데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고 단 몇 분이라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김없이 받는다. 이렇게 노사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劉秉勳 공장총무담당장수는 금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정부로부터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湖油는 과열스카우트행위를 절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造景事業도 적극적으로 벌여 약 3만주 이상 식수하였으며 2만본 이상의 꽃화단 조성계획도 가지고 깨끗한 직장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다. 직원자녀 2명에 한해서 주는 장학제도도 어느 회사보다도 충실한 바, 중고등학생은 1급지역(서울)기준 80%를 지급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서울문리대 기준 100%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효율적인」 폐열회수 보일러 시설 2개를 78년, 81년에 설치하여 각각 하루에 247드럼과 370드럼의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고 병커-C油 탱크에 전부 85℃ 이상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선두에 있다는 긍지도 대단하다.



## 京仁에너지

仁川市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京仁에너지(株)의 정유공장

에 대한 복지후생실태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살펴보자. 京仁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발전소(32만 KW)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불황으로 심한 적자에 시달리던 때에도 생산된 벙커C油의 자급발전으로 보완관계를 이루는 효율운영을 통해서 커다란 힘이 되었다.

京仁은 제일 먼저 본사와 공장간에 疎遠感이 전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우리 나라의 심장부인 京仁지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제품의 수송·판매에서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본사와 공장간의 지리적 격리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장에서 영등포까지 승용차로 20여분의 거리이고 또한 통근차가 仁川은 물론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는 3交代로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까지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다음, 食堂은 105평에 190명 동시수용이 가능하고, 발전소는 별도의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식당을 이용치 않을 때는 월 2만 5천 원 상당의 대체지급도 하고 있다. 食單작성에 연 1~2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 8동(33평, 50평)과 아파트 6동, 총 56세대 규

모인 社員住宅은 월 8천원~1만 5천원의 저렴한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2동(64개방)의 독신자 숙소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원주택을 이용치 않고 仁川과 서울의 자택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다른 회사와는 달리 一部는 비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 내부시설은 각종 불박이, 소파,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임주시 불필요한 이삿짐을 덜 수가 있다. 아울러 구내에 구관장을 설치하여 생활용품을 외상 구입하고 한 달 후에 봉급에서 공제토록 하며, 금년 중에는 제품의 종류를 넓혀 각종 가전제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회, 산악회 등 각종 同友會(씨클활동)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의 기회를 통해 일체감조성에 힘쓰고 있다. 각 동우회에 체육시설 등 장소제공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차량지원은 물론 외부장소 임대 지원금도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정구장 6면(정유공장과 발전소에 각 3面), 배구장 2面, 축구·야구장 겸용 2개, 야구장 전용 1개, 농구장, 씨름장, 배드민턴장, 탁구

장, 당구장은 물론 여름에는 정수시설이 된 수영장을 가족에게까지 개방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불링장을 설치하여 거의 매일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새마을文庫를 두고 전문서적은 물론 교양서적도 수시 읽도록 하며 두 자녀까지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을 100% 지급한다. 한편 각종 경조금은 물론 年金제도 실시를 검토중에 있다.

다음, 77년에 시작되어 79년부터 본격화된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살펴보자. 53개 분임조활동으로 분기별로 경진대회를 벌이고 있고 기타 에너지절약사업(78년에 전국 최우수 열관리업체로서 대통령표창 수상), 일체감조성사업(연 2회 체육대회, 근로자위회 등), 환경미화사업(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는 자연보호캠페인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80년도 실적으로 전국 새마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안제도를 실시, 1인 1건을 목표로 해서 경영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재해방지 및 安全操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수시로 100만 시간 돌파기념을 마련하여 1일본의 봉급 및 부서별파티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 미국안전협회로부터 네차레나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77년에는 556만시간 무사고 공장운전으로 최고명예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그 외 노동부(81년), 동자부(83년)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도 활발한 바, 시온육아원(5명), 부평그리스도원(2~7명)에 각각 분기별로 양육비를 1인당 7천원씩 지



京仁에너지 仁川工場の 직원 체육대회

급하고 있고 원창동 진입도로 포장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새마을노인회에 각종 오락기구 및 연료를 매년 지원하며, 영세민지원, 군·경찰부대위문 등은 물론 앰블런스 및 소방차량 지원까지 하면서 仁川 지역 주민·단체와의 협조를 적극 행하고 있다.

끝으로, 信用協同組을 설립하

여 1억 4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대부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율적으로 회원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도 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최고 320만원(보통 대부100만원, 긴급대부 20만원, 적금대부 200만원 등)까지 대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연말결산을 통해 이익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약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은 공장내의 전임직원이 식생활의 불편은 조금도 느끼지 못할만큼 良質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도 그러려니와 청결하고도 잘 정돈된 분위기가 입맛을 더욱 돋아 줄 것 같았다. 쌍용정유 온산공장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로는 공장 임직원을 위한 住居施設이 있는데, 99세대의 사택이 蔚山 시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클럽하우스와 각종 운동시설 및 유치원까지도 단지 내에 설치되어 쌍용가족들의 생활에 큰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無주택사원을 위한 주택보조수당이 月 2萬~6萬원까지 지급되어 주택의 부족에서 오는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 주고자 하는 舍身 苦肉計의 배려도 더 한층 힘이 되고 있다.



## 雙龍精油

花 信을 듬뿍 담은 3월의 훈풍을 가슴에 가득 안은 靑山工團入口의 고개를 넘자마자 검푸른 東海의 물결이 일렁이는 靑山灣 바닷가에 자리잡은 웅장하면서도 산뜻한 모습의 雙龍精油潤滑精油工場이 한눈에 들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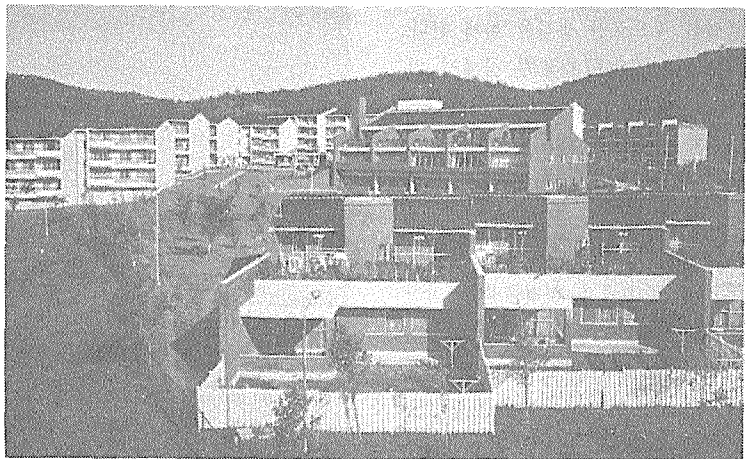
기존의 國內 여러 정유회사들과는 달리 73년 제1차 石油危機 이후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자원내서 널리즈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 2년여의 교섭 끝에 국내 최초로 國營 이란石油公社(NIOC)와 50대 50의 합작으로 장기원유공급계약 아래 76년 1월 6일에 설립된 雙龍精油는, 79년의 이란혁명후 해외투자자본을 철수한다는 회교혁명정부의 기본정책에 의해 이란측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설립당시의 한국·이란석유주식회사에서 雙龍精油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순수민족자본의 정유회사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 출범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만 했던 雙龍精油는, 79년의 제2차 石油危機 이후 공급계약원유인 이란원유의 高價와 신규 투자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및 시장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말못할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울러 후발기업

으로서의 온갖 난관도 많았지만, 精油産業의 막내동이 주자답지 않게 쌍용정유의 복지후생제도는 회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개선되어, 이제는 쌍용정유의 임직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愛社心과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안내를 맡은 공장 業務部의 차근수계장은 말한다.

대강의 설명을 들은 후, 취재팀이 돌아 본 공장시설들은 믿기우지 않으리만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한때의 오리들이 노닐고 있는 곳이 폐수처리장이라는 설명에서부터 놀라움을 금

한가지 特記할만한 것은 雙龍精油의 勞使協議方式인데, 法에 의한 강제성 따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이 쌍용가족회의가 구성되어서, 業主측과 근로자측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논



雙龍精油 蔚山工場 직원사택

의하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층 더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쌍용정유 가족의 알찬 고등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녀장학금 지급제도는 『쌍용정유를 대한민국 제 1의 福祉社로 발전시키고 회사의 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李承源社長の 경영철학에 따라, 금년부터 우선 학자금제도가 전면 개선되어 그 내용과 質面에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았다고 하며, 금번의 전면개선에 의해 지급액도 83년의 2천 2백만원 규모에서 올해는 6천 7백여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사원 자녀 학자금지급 비율이 93%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최고 90%까지의 보조를 받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걸음마시절부터 제 2차 석유위기라는 회오리바람 속에서 국제경기침체와 油類需要감퇴

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불같은 투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 선발 정유회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된 쌍용정유는 또한 지난 81년부터 工場의 발전과 아울러 地域社會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蔚州郡 溫山面 방도리의 400여 세대에 새마을사업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등 신망받는 雙龍精油가 되고 있다.

賃金凍結의 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모든 產業에 걸쳐 근로자를 위한 福祉厚生제도가 신설·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그래도 후발기업이란 어려움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앞서가는 福祉厚生제도와 勞使간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 쌍용정유의 모습에서 國內精油産業의 내일을 기약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낸다.

르게 친근감부터 느끼게 한다.

일찌기 지난 77년에 벌써 厚生福祉優秀業체로 大統領표창을 받은 사실이 입증하듯이 極東石油의 厚生福祉제도는 선진국의 기업 못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알차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종업원의 離職率이 작년의 경우 1.1%에 머물렀으며, 평균 근속년수가 9.5년이라는 金永吉 노무과장의 설명에서부터 取材팀은 왠지 모르게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취재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위압감은 가지지 않아도 좋을만한 규모의 공장시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極東石油의 福祉厚生制度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 보기 시작하면서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慶弔金制度和 退職金制度의 내용이 실로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경조금에 있어서 근무년한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혼 축의금에 있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本人의 경우 임금 300%가 지급된다고 하며, 퇴직금제도의 경우는



## 極東石油

精油社라고 하면, 으레껏 메이저라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國內精油業界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작은 極東石油만은 설립당시부터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발족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다.

1964년 11월 우리 나라 최대의 港口인 釜山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極東石油의 마크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돈인 엽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크도 마크려니와 會社의 설립 과정에서 資本, 設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資材까지도 우리 손에 의

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어딘가 모



테니스를 즐기는 極東石油 직원들

타회사와는 특이하게 社會保障制度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사뭇 고무적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在職中 공무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영구불구가 되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60세 停年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최고 평균임금의 85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영자의 배려 속에서 종업원들의 愛社心과 誠實性은 날로 뿌리 깊히 자리잡혀 가고 있다 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종업원 상호간의 相扶相助 정신으로 이어져 공장내에는 全職員이 가입된 새마을 金庫가 구성되었으며, 83년 9월에 이미 出資金 總額이 1억 3천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장학제도의 경우도 역시, 어느 회사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완비되어 있다. 中·高生의 경우 全額을,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全額, 재학생의 등록금은 1/2을 회사측이 부담하여 종업원 자녀의 向學열을 더욱 북돋아 준다.

한편 山岳部를 비롯한 10개의 社内씨클이 조직되어 있어 종업원들의

心身단련과 여가선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2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회사보조금과 더불어 매년 2~4회의 각종 행사를 펼친다고 한다. 특히 축구부의 경우, 우수한 기량과 견고한 팀워크로 釜山지방의 강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난 76년에는 韓國日報주최 제1회 봉황기쟁탈 직장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거제도에서 하계전지 훈련까지도 실시하였다.

종업원을 위한 給食施設과 住居施設을 살펴보면, 300여명 종업원에게 푸짐한 中食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1인당 월 400원 미만의 자체부담으로, 1일 2명의 우유 및 야쿠르트를 기호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無住宅종업원을 위해서도 34세대의 직원사택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每年 海雲臺에 설치되는 하계휴양소는 종업원들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創社이래 단 한건의 勞使紛糾도 없었다는 模範직장으로서의 極東石油은 또한 地域社會와의 유대증진

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난 79년부터는 每年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璜프란치스코 보육원등 釜山 지역소재 보육원과 경로당 등에도 온정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흐뭇한 소식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다.

精油産業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출발한 극등석유가 경영자의 따뜻한 마음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굳게 뭉쳐 성장에 성장을 거듭, 重質油分解시설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제시설의 대폭적인 확장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蓄積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국내 정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종업원 모두가 평생토록 몸담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애착을 갖고 한방울의 땀이라도 아끼지 않으며, 勞使가 진실로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極東石油의 모습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

職務에는 본분을,

生活에는 분수를